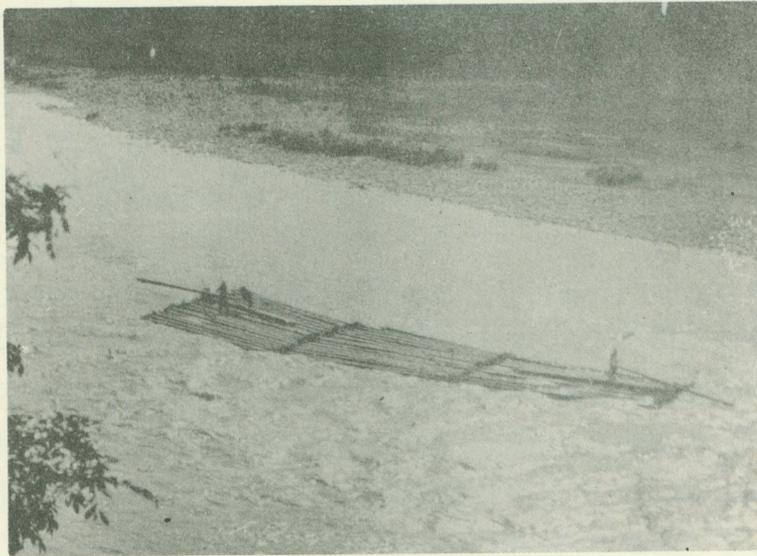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豆滿江 뗏목노래”  
(咸鏡北道)



낭만을 싣고 떠나는 두만강 뗏목

日 時 1981年 10月 22日~24日

場 所 仁川直轄市公設運動場

咸鏡北道民俗藝術保存會

## 人 事 말 씀



오늘 맑고도 높푸른 가을하늘 아래 躍進하는 港都 仁川直轄市에서 우리固有의 傳統文化藝術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第22回 全國民俗藝術 競演大會를 盛大히 開催하게 된 것을 衷心으로 慶賀해 맞이 않습니다.

우리는 五千年의 燦爛한 歷史를 자랑하는 單一文化民族으로서 祖上으로부터 많은 文化遺産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文化를 잘 保存啓發해서 새로운 文化의 創造에 寄與함과 同時에 後世에 물려주어야 할 時代的인 使命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祖國이 分斷된 北韓의 文化藝術은 共產主義者들의 抹殺政策으로 異質化 또는 漸次사라지고 있음은 참으로 痛嘆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本道에서는 民俗保存會를 創立하여 故鄉의 民俗文化藝術을 되살려 그 眞價를 널리 宣揚하고 나아가서는 平和的 統一이 이룩된 후 이를 계승하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道에서는 今般 한국 北端의 風致를 잘 묘사한 「豆滿江뎃목노래」를 出演 種目으로 擇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本大會를 契機로 널리 普及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大會를 主管하신 仁川直轄市民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는 同時 本道出演者들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後援하신 同鄉여러분께 對해 感謝를 드리면서 人事로 가름합니다.

1981年 10月 22日

咸鏡北道民俗藝術保存會

會 長 金 東 秀

### 咸北民俗藝術保存會

會 長	金 東 秀	理 事	김 동 수	理 事 長	태 환	監 事	金 仕 凡
副會長	李 浩 舜	"	김 기 웅	"	이 승 학	"	金 哲 洙
"	辛 寧 滿	"	김 연 만	"	이 호 순	常 務	蔡 龍 文
"	金 東 一	"	김 길 봉	"	허 용 하		
"	金 吉 鳳	"	김 동 일				
"	許 龍 夏	"	신 영 만				

제22회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參加하면서

激 勵 辭



5 千年의 民族史를 營爲해오면서 固有의 傳統文化를 꽃피워 온 우리 祖上들의 빛난 열과 슬기를 오늘에 되살리기위해 마련된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直轄市로 承格한 港都 仁川에서 開催된것을 매우 意義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우리 咸鏡北道地方의 民俗藝術은 여러가지로 表現되어 왔으나 代表的인 信仰, 風俗, 風習과 이에 따르는 衣裳, 道具등 有形無形의 民俗的 藝術과 民謠가 極少함은 너무도 잘 알려져있는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豆滿江을 사이에두고 北間島地方에 이르기까지 많은 住民들의 生業속에서 여러가지 놀이와 노래로서 傳來하여 오는것이 많을것으로 믿어 發屈하고 研究하고 繼承 傳修하여 先祖들의 英特하신 슬기를 이어받아 郷土文化藝術을 後世에 傳承될수있게 하기위하여 調査, 保存사업을 展開하고있던중 이번에 처음으로「豆滿江 뗏목 노래」를 發屈하여 出演하게됨을 큰 소득으로 알고있으며 더욱이 今年에「咸鏡北道民俗藝術保存會」를 創立하였으므로 郷土의 民俗을 보다 깊은 뿌리를 내릴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北韓에는 우리가 잘알고 있는 바와같이 그들의 民俗文化이 抹殺政策으로 因하여 오래전에 民俗藝術은 漸次사라져 가고있음으로 平和的 統一이 이룩된후 民俗文化藝術을 내고장에 傳修시킬 義務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銘心해야 하겠습니다.

民俗藝術은 民族精神의 뿌리이며 나아가 民族文化創造의 源泉이 될것임으로 民俗藝術의 脈絡을 이음을 自負하는 咸北民俗藝術팀은 해마다 이 大會에 參加하여 그 技倆을 자랑하였으므로 今年에도 내고장의 民俗을 널리 알림과 아울러 좋은 成績을 낼것을 確信합니다.

끝으로 本大會를 主管하는 仁川民市の 勞苦에 深深的 感謝를 드리면서 이 大會를 通하여 우리겨레만이 간직한 民俗藝術의 眞價를 널리 宣揚하고 크나큰 結實이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1981. 10. 22

咸鏡北道 知事 金 東 石

꽃피우자 傳統文化

創造하자 새 歷史

## 解 說 文

### 豆滿江 뗏목노래由來

우리民族의 象徴인 白頭山은 산중의 祖宗으로서 이 강토에 얼기 설기한 山脈의 모두 이 山에서 뺏어내리고, 이로부터 發源한 豆滿江은 東으로 흘러 東海에 이르고 鴨綠江은 西로 구비쳐 黃海에 들어갔다.

그리고 광대한 개마고원을 치마폭처럼 두르고 앉아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손이 닿지 않은 原始大森林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일대를 이루었으며 이곳에 密生한 낙엽송은 평균 樹齡이 1백80년이며 기리는 36m내외이고 둘레 직경이 평균 약 50cm에 달한다.

이 原始林이 總面積은 56萬7千6百町步에 이르며 축적량은 7千6百여萬尺縮로서 全國第一位를 차지한다.

이러한 原木을 채벌하여 소발귀(썰매)로 백두산 東南部의 海拔1천5백m 이상의 광막한 茂山高原하구인 三長(지명)까지 運搬, 여기서 다시 편벌하여 비로소 豆滿江을 이용하였다.

편벌뗏목 수량에 따라 뗏군의 인원수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뗏군은 기술을 발휘하여 急流 또는 岩石에 부딪치는등 만고의위험을 무릅쓰고 뗏목을 타고 수일동안을 걸쳐 뗏목노래로 自慰하며 연면수(지명)와 서두수(지명)를 經由하여 會寧(지명)까지 내려와 큰땀(지수지)에 저장하고 製材所에서 처리한다.

豆滿江뗏목노래는 구절구절이 슬픔과 애수를 내포한 曲으로서 낯설은 물새들을 벗삼아 그리워 못잊는 家族과 故郷을 향하여 끝없는 물줄기를 더듬어 가는 뗏목 생활은 오직 韓國北端의 風致를 잘 묘사한 노래로서 구성지고 애달픈 事緣이 대부분이다.

이 豆滿江뗏목노래를 學者들과 郷土史家들이 關心을 모아 오던중 當時 茂山(지명)에서 목재사업을 經營한 백낙기옹의 口述에 依하여 歌詞와 曲을 입수 했다.

## 두 만 강 뗏 목 노래

1. 백두산 골짜기에 진달래피고  
강가에 버들피리 노래부르니  
『후렴』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디야  
두만강 천오백리에 뗏목이 뜬다
2. 물줄기 구비구비 끝없이멀어  
낮서른 물새들도 벗이되었네
3. 그리워 못잊던 상삼봉어니  
세모시 치마감에 가슴뛰는다

## 出 演 者 名 單

指揮監督 波 鳥  
進 行 蔡 龍 文

차	금	순	김	윤	신	전	채	금	이	진	옥	이	길	복
최	금	순	이	채	단	석	충	성	유	정	숙	박	승	옥
박	옥	주	최	난	철	김	영	춘	김	해	주	이	명	복
임	정	규	강	승	명	천	용	년	주	익	순	김	옥	진
황	재	금	김	혜	자	장	경	녀	안	영	자	채	용	문



咸鏡北道				
知事	金東石			
事務局長	李光烈			

咸鏡北道民會						
會長	李南珪					
副會長	金奎漢	張俊燮	金東秀	尹 璫		
監事	朴文松		許 亮			
事務局長	金光澤					

在仁川直轄市 咸鏡道民會一同 會長 金吉鳳	咸北어머니會 一同	咸北書友會 一同	豆滿江會 一同	咸北道民會 市·郡民會長 一同
以北5道京畿道 事務所 所長 金相國	在大邱直轄市 咸北道民會 會長 許龍夏	在釜山直轄市 咸北道民會 會長 董泰烈	冠帽會 一同	咸鏡北道 名譽市長·郡守 一同